



WRC-2003 대비 APT 제3차 준비회의

류충상 • TTA 전파통신기술위원회 특별위원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 공업연구관
 한국 ITU-R 연구위원회 SG1 분과위원장
 WRC-2003 준비단 WG1B 팀장
 김정기 •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국 통신사무관

1. 개요

지난 6월 10일부터 15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APT 2003년 세계전파통신회의(WRC-2003) 준비그룹(APG2003) 제3차 회의가 열렸다. 25개 회원국, 8개 회원사, 14개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에서 총 236명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WRC-2003 의제에 대한 아태지역 공동 제안서를 마련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전파연구소 위규진 과장을 수석대표로 정보통신부 오승곤 서기관 등 30명이 참가하여 아국의 입장반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회의는 APT 신임 사무총장(나라얀)의 환영인사와 APG 준비그룹 의장(아가왈)의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7월 2일부터 열리게 되는 규제문제 관련 특별

위원회(SCRPM)에 대한 아태지역 공동제안 및 WRC-2003 의제별 공동입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주요 업무별로 표 1과 같이 6개 작업반(Working Party)을 구성·운영하였다. 각 WP는 Drafting Group(23개)을 구성, 초안을 작성하고 WP의 검토를 거쳐 본회의(Plenary)에서 승인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WP1 의장을 역임했던 뉴질랜드 레일턴이 APT 사무차장으로 진출함에 따라 WP1 의장에 동일 국가의 제이머슨을 선출하였다.

2. WRC-2003 주요 의제별 공동입장

〈표 1〉 APG 회의 작업반 구성

작업반	주요 업무	의장
WP1	○ 규제/절차 문제 ○ PP-98, PP-02 전파관련 문제 등	제이머슨(뉴질랜드)
WP2	○ 이동, 이동위성 및 우주과학업무	위규진(한국)
WP3	○ 무선헌행, 무선헌행 위성 및 무선헌위 업무	고사카(일본)
WP4	○ 해상이동, 아마추어, 아마추어 위성 및 중·단파 방송업무	에쉬만(호주)
WP5	○ 고정위성 및 방송위성 업무	성향숙(한국)
WP6	○ 고정 및 고정위성 업무와 HAPS	하시모토(일본)

50개 WRC-2003 의제중에서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위성망 국제 등록절차, 공공안전용 공통 주파수 분배, GMDSS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 HAPS 문제, DAB 도입문제, IMT-2000 이후 시스템, 기타 위성서비스 등 8개 의제에 대해 작성된 APT 공동의견을 요약하였다.

○ 위성망 국제등록 절차의 간소화

- APT 잠정의견 : APT 회원국들은 위성망 등록자료의 간소화를 지지하고, 위성망 등록자료 검증 S/W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함.

※ 현행 3단계(사전공표, 조정, 통고) 절차중 사전공표 절차를 삭제하는 것이 ITU 전파통신국 작업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인지를 적극 검토해야하며, 국제등록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전산화 시스템의 개발 가능성을 고려해야함.

○ 공공안전용 국제/지역 공통주파수 분배

- APT 잠정의견 :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세계적/지역적으로 조화된 주파수 지정을 지지하고, ITU-R에서 세부적인 스펙트럼 소요량을 시급히 연구할 것을 촉구함.

○ 범세계 해상조난 안전시스템(GMDSS) 도입시행

- APT 잠정의견 : 모든 회원국이 2182kHz와 VHF 채널16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을 지지하고, 500kHz 무선전신 폐지에 대하여는 대부분 찬성하지만 인도네시아의 경우 유보 의견

○ 5150-5725MHz에서의 이동, 고정, 지구탐사 위성, 우주업무, 무선측위 업무 등의 주파수 분

배검토

- APT 잠정의견 : 결의 122에 의한 5150-5350, 5470-5725MHz 대역의 이동업무 분배, 5250-5350MHz 대역의 3지역 고정업무 분배, 5460-5570MHz의 EESS/SRS 추가분배, 5470-5725MHz의 무선측위 업무 승격 문제 검토를 지지함.

※ 일본은 3세대 이동통신의 5460-5570MHz EESS/SRS 추가분배 및 5470-5725MHz 무선측위 업무 승격을 지지하고 있으나 한국은 동 대역의 RLAN 확장의 중요성 표명

○ IMT-2000내에서 성층권 통신시스템(HAPS)를 운용하기 위한 기술적, 법적규정 검토

- APT 잠정의견 : 현재 인접국과의 간섭조정 절차에 대한 연구가 ITU-R에서 충분히 진행되어 있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

○ 2630-2655MHz에서 비 정지궤도(NGSO) 위성DAB를 위한 threshold 레벨 검토

- APT 잠정의견 : 의제 1.34는 NGSO 위성DAB에 한정되므로 GSO(정지궤도)를 이용하는 위성DAB에 적용되어서는 안되며, WRC-2003 이전까지는 NGSO 위성DAB용 우주국의 전력선 밀도값을 계산하기 위한 Tools(S/W)이 개발되어야함.

○ IMT-2000 개선과 IMT-2000 이후 시스템

- APT 잠정의견 : 대부분 회원국들은 IMT-2000 이후 시스템의 스펙트럼 지정 문제가 시기적절하게 WRC-06에서 다루어져야 함을 공동 인식함.

※ 이란은 3세대 이동통신 추이를 보고 WRC-06 이후 스펙트럼 논의 주장

- 1GHz 이하 대역에서 이동위성 업무용 주파수 추가분배
 - APT 잠정의견 : 1GHz 이하에서 기존 지상망의 이용밀도가 높으므로 충분한 보호방안이 연구되어야 함.

3. 총회의 주요 안건

- SCRPM 대응방안

SCRPM은 WRC 의제중에서 특별히 규정의 일관성 검토가 필요한 13개 의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WRC 준비회의(CPM) 1차 회의(2000. 6)에서 구성한 위원회로 그 구성은 <표 2>와 같다.

- APG 부의장 선출건

최종 총회에서 레일턴(뉴질랜드)의 APT 사무차장 진출로 공석이 된 APG 부의장직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이 아라스테(이란)를 부의장으로 추천하였으나, 한국, 호주, 일본 등은 부의장의 임무, WP1 의장이 겸임하던 기존의 관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여 선출을 뒤로 미루기로 하였다.

의장(아가왈)은 AdHoc 그룹을 결성하고, 뉴질랜드의 Miss Moody를 의장으로 임명하여 다음 회의까지 부의장의 역할 및 선출방법 등을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APG 공동기고문(ACP) 채택절차

<표 2> SC의 구성 및 의제 배분

SC	업무구분	의제
SC-1	방송위성	1.27 1.34
SC-2	고정위성	1.19 1.25 1.29 1.30 7.1
SC-3	우주과학, 5GHz	1.4 1.5 1.16 1.12
SC-4	HAPS	1.13 1.33

※ SCRPM(Special Committee on Regulatory and Procedural Matters)

SC는 WRC 전에 1회의 회의를 거쳐 ITU-R 연구반에서 작성한 CPM 보고서 초안을 토대로, WRC 결정에서 규정의 제개정에 있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미리 검토 정리하고 보고서로 작성한다. 이번 SCRPM 회의는 7월 2일부터 12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므로, 그 준비기간이 촉박하여 이번 아태지역 공동제안서 처리는 예외적으로 회원국의 승인절차 없이 ITU 부문회원 자격으로 APT 이름으로 제출하기로 하였다. 즉, "APT 회원국" 이름으로 정리된 기고문을 모두 "APT" 이름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기고문 발표자는 각 WP 의장이 SC에 참가하여 발표하되 참가하기 어려운 WP 의장은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였다.

지난 회의에서 공동기고문 채택절차를 논의하였으나, 이란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었는데, 이번 회의에 이란이 CEPT, CITELE 등의 공동기고문 채택절차를 참고하여 정리한 기고문(APG2003-3/47)을 제출하였다. 충분한 검토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 의장은 AdHoc 그룹을 결성하고, 아라스테(이란)를 의장으로 임명하여 다음 회의까지 의견을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호주는 이란의 의견에 찬성하면서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도표를 만들어 배포하였다.

- 차기 회의

우리나라 수석대표(위규진)는 2002. 8. 26. ~ 31

(6일간),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리는 4차 APG 회의에 회원국을 공식적으로 초청하고 참가요청을 하였다. 또한, 무선랜을 제공할 예정임을 알리고 가능한한 무선랜 카드를 소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레일턴이 부산 회의에 연이어 IMT-2000 포럼이 동일 장소에서 열리게 됨을 주지시키고 많은 관심을 부탁하였으며, 일본도 APG 5차 회의(2003. 2. 19 ~ 25)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음을 공지하였다.

○ 전파총회(RA) 및 세계전파통신회의(WRC) 일정 및 장소변경 공고

이번 회의에 참석한 ITU 대표는 베네수엘라가 WRC-2003 회의개최를 포기하였음을 밝히고, WRC-2003과 RA 및 WRC의 일정은 같고, 장소가 새롭게 확인되었음을 공고하였다.

- RA : 2003년 6월 2일 ~ 6일
- WRC : 2003년 6월 9일 ~ 7월 4일
- 장소 : 제네바

4. 국제/지역 기구의 의견

개막 총회에서 의장은 국제기구와 다른 지역기구로부터 참석한 대표들에게 기본입장을 발표케 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들 기구대표들의 발표내용을 간략히 요약 정리하였다.

CEPT에서는 CPG의장인 Mr. Francois Rancy가 WRC-2003에 대한 CEPT의 준비상황을 보고하였다. CEPT는 4개의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고, 각 의제별 contact point도 지정하였으며, CEPT와 MOU를 맺은 APT와 같은 기구도 CEPT 준비회의에 참가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들은 유럽전기통신사무소의 웹사이트(www.ero.dk)에서 자유롭게 볼 수 있다.

한편 CITEL을 대표해서 Dr. Robert McCaughern이 CITEL의 준비상황을 발표하였는데, CPM 보고서의 많은 부분에 대해 기본 견해가 성립되어 있음을 주지시키고, 각각의 의제의 contact point를 참조할 것을 말하고 긴밀한 협력을 당부하면서 특히, 137KHz 대역에서의 아마추어 업무에 관해서 APT의 의견을 요청하였다.

ICAO를 대표한 Mr. Rimal은 다양한 항공안전 서비스를 위한 독점적인 주파수대역 할당을 보장받는데 큰 관심을 보였으며, 항공서비스를 위해 할당된 주파수 대역에서는 특정 국가의 주석을 지우기를 원하고, 새로운 서비스로 인해 더 이상 주파수 분배에서의 변화가 없기를 희망하였다.

세계아마추어무선연맹 부의장 Dr. David Wardlaw는 전파규칙 25조항에 대한 개정된 안을 제시했으며, IARU는 또한 7MHz 대역에서 아마추어 서비스를 위한 전세계적 주파수 할당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ABU Mr. Sharadindoo Sadhu는 HFBC의 디지털 방사의 도입과 4-10MHz 대역에서 서비스를 위한 더 많은 양의 주파수 할당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7MHz 대역에서의 아마추어 서비스의 조화로운 주파수 분배 및 전파규칙 부록 30 및 30A와 관련된 BSS 공유문제를 언급하고, 결의 539에 따른 공유 연구의 맥락에서 볼때 비정지 위성궤도의 사용이 일부 국가에게는 새로이 BSS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결의 539의 전력속밀도 제한치가 강화되면 BSS(음성) 서비스에 과도한 제한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ITU 전파통신국을 대표해 Mr. Mitsuhiro Sakamoto가 위성망 filings backlog에 대한 현재 활동에 대해 발표하고, Rules of Procedure에 대해 RRB가 제안한 문제점들 중에는 현재의 RR과 대치되는 점이 있음을 주지시켰다.


IATA의 Mr. Dayanthe Athulathmudali는 5GHz

대역에서 사용하는 ANLE(Airport Network and Location Equipment) 시스템이 공항의 활주로에서의 incursions을 줄일 수 있는 바, 동 주파대의 새로운 업무도입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5. 맺음말

이번 APG 회의에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이 주로 제안을 하고 다

른 나라가 의견을 개진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주요 WP, Drafting Group 의장을 우리나라가 담당하여 아·태지역의 의견중재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우리나라 제안내용도 충분히 반영되었다.

하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차이가 분명해지고 있어서 다음 회의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되므로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 회의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만큼 충분한 준비로 회원국들에게 IT코리아의 진면목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한국 브로드밴드 기술 곧 미국 추월

“브로드밴드 기술에서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을 추월할 수 있다” 세계 최대의 전자업체인 소니의 이데이 노부유키 회장은 “미국은 브로드밴드 산업을 시장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이같은 자율정책은 미국이 업계 리더 자리로 올라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6월 13일 보도했다. 이데이 회장은 특히 “기술이 변화할 때는 정부의 규정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미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는 지금까지 새로운 기술에 대해 규정을 마련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미 브로드밴드 사업에 세 가지 약점이 있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은 휴대폰 시스템에 표준이 없어 3개 시스템이 상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경쟁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계획의 향방을 가늠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번째로 미국 정부와 기업들이 브로드밴드에 대한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며, 마지막으로 미국은 규제가 거의 없어 네티즌들이 음악과 사진 등을 인터넷을 통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브로드밴드 산업의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데이 회장은 이와 관련해 “지식사회에서 적당한 지적재산과 저작권의 보호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규제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할 경우 이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정보화 사회에 큰 위협이 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정부차원의 규제를 마련하지 않으면 일본이나 한국, 중국 등이 조만간 업계 1위 자리로 올라설 수 있다”면서 “일본은 미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비난하며 허송세월하고 있을 때 일본은 이미 미래의 10년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데이 회장은 지난 2000년 6월에 소니의 회장 겸 최고경영책임자(CEO)로 임명된 이후 가전왕국 소니를 디지털 시대의 선두주자로 거듭나게 하는 작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언론들로부터 세계 IT업계를 이끌고 있는 주요 리더로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다.